월요광장

도시 경관과 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안 논란

이봉수
광주도시공사 도시주택연구소장

최근 광주시가 내놓은 도시 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포함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약인 디자인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층수 제한 폐지를 통해 다양한 스카이라인를 구성하고 행정 과정 단축 및 용적률의 탄력적 적용으로 디자인 향상을 꾀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왜 논란이 되는 것일까?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은 시행된 지 2년도 되지 않은 건축 높이 제한을 바꾸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것과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과정상의 문제, 그리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획일적인 층수 제한의 폐지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의 고층 건물 건설이 가능해지고, 과도한 주택 심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선 방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의적 도시 디자인 구축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없애고, 광주경관 기본계획상 중점관리구역을 기존 네 곳에서 세 곳을 추가해 상업지역과 관문 지역에 대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개선으로 건축물 심의 기간을 단축해 그 역량을 디자인 혁신에 쏟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장기 과제로 2024년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 개선을 검토해 우수 디자인 건축물 조성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규제나 관리의 완화로 다양한 디자인을 유도하고 경관상 지켜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려하는 측에서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광주 관문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선 고층 아파트와 도심 상업지역의 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규제나 관리가 위원회나 행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층수 제한이라는 규제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장치가 없어지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 난개발이 되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층수 제한의 부작용으로 획일화된 스카이라인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빛가람과 전남도청이 있는 남악에 가보면 같은 층의 건물들이 최대한의 용적률을 찾아 거대한 벽처럼 도로를 따라서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마다 답답한 마음이 든다. 층수 제한이 없어진다고 해도 지역별로 최고 용적률이 정해져 있어 그 범위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데, 도로 사선 제한 폐지로 허용 용적률 범위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다. 기반시설이 낙후된 도심 상업지역에 대규모 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서며 사회적 이슈가 되자 이후 심각성을 인지하고 상업지역과 시가지 경관지역에 대해 가로구역 높이 제한을 통해 건물 높이를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서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지역 경관이나 환경에 영향이 있는 경우 층수 제한이나 배치 계획 변경 등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어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현재는 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안의 큰 방향만 제시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지침이나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경관계획과 경관중점 관리구역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과정상 우려에 대한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층수의 높고 낮음이 아닌 개발 규모의 적정성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통합심의위원회는 예측 가능한 일관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우려의 시선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광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라는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유도 필요하다.

수필의 향기

쥐눈이콩 인형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며칠째 감기를 앓고 있다. 독한 약도 녀석은 의연하게 견디며 껌딱지처럼 내 몸에 딱 붙어 있다. 며칠 새 핼쑥해졌다. 그나마 얻은 게 있다면 그건 오래도록 아픈 환자에 대한 동정심과 연민이었다.

그 아인 결석이 잦았다. 우등상보다 개근상을 더 값지게 여기던 때였다. 하얀 피부에 유독 눈이 쥐눈이콩처럼 까만 애였다. 공부보다 손재주가 많았다. 자투리만 있어도 뚝딱 무엇을 만들었는데, 애 손에 잡힌 천 조각들은 알록달록 고양이도 되고 강아지도 되었다.

어느 하교 시간이었다. 그 애가 무언가를 불쑥 내밀었다. 인형이었다. 애지중지 아끼던 진짜 인형이었다. 처음 받은 선물, 아니 그 애를 쏙 닮은 인형이었다.

수줍음 많은 난 누가 볼세라. 얼른 책보에 싸서 등에 매고,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향해 달렸다. 룰루랄라 너무 신나 신작로에 몇 차례 넘어졌지만 다행히 인형은 멀쩡했다. 그날 이후, 나도 무얼 보답하고 싶었다.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 돼지 저금통을 뜯기로 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쥐눈이콩 애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종일 옆 의자에는 초겨울 스산함만 먼지처럼 쌓였다.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그 앤 결석을 했다. 난 준비한 선물만 만지작거렸다.

"이거 며칠 먹으면 힘이 쑥쑥 솟을 거야"

약국 아저씨가 그랬다. 난 내일은 그 애가 산다는 저 산 너머를 꼭 찾아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잠이 들곤 했다.

그렇게 며칠이 훌쩍 지났다. 그리고 겨울 방학이었다.

마지막 출근 날이다. 직원들이 모두 환호성과 박수로 퇴사를 축하해 주었다. 난 거듭 고개를 숙여 감사 표시를 하고 꽃을 들고 카메라 앞에서 30여 년 직장 생활을 기념했다. 그때 최 과장이 뒤늦게 달려왔다. 그리고 내게 불쑥 인형을 내민다.

'웬 인형?'

작고 깜찍한 꼬마 인형이었다. 순간 그 아이가 떠올랐다. 까만 쥐눈이콩 눈을 깜빡이며 인형이 나를 보는 것 같았다. 그 이후 몇 차례 기회가 있었건만 난 그 애 안부를 묻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되었다.

"퇴직하면 내일부터 혼자 사는 일에 익숙해야 한다고 하네요. 말동무 하세요"

난 그 인형을 옆구리에 껴안고 껄껄껄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 애가 사는 마을 남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녀석은 자기도 오래 전 들었단다.

"감기가 감기만이 아니란다. 오래되면 폐렴이 되고 심하면…."

병원은커녕 약국에 가는 것조차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별들이 반짝반짝 빛났다. 하늘에서 그녀가 까만 쥐눈이콩눈을 반짝이며 나를 보는 것 같았다. 번뜩 그 인형이 궁금해졌다.

'그 쥐눈이콩 인형은 어디로 갔을까?'

내 방에 오신 어머니는 저 인형 때문에 내 성적이 떨어진다며 나무라셨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인형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몸살감기가 왔다. 감기를 앓고서야 처음으로 그녀가 되어 보았다. 몸도 마음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마음의 근육을 타고난 이가 있듯이 육체도 비슷했다.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다. 어쩌면 그 애도 훗날 내가 혹여 외로울까봐 말동무 하라고 인형을 만들어 주었을지 모른다.

통장을 털어 어렵게 산 그 비타민은 끝내 그녀에게 가지 못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훌쩍 넘겨버렸다. 그 영양제는 그녀에게 애타게 가고 싶었을 게다. 사랑은 보석처럼 영원한 걸까. 아니면 정말 비타민처럼 유효기간이 있을까. 무엇보다 난 지금 그 애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걸까. 사랑에도 유통기간이 있다면 지금 내 사랑은 얼마라도 남아 있는 걸까?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 고

어떤 호칭이 좋을까요

박진영
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우리나라에 살면서 한국어를 익혀 쓰는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호칭이다. '당신'이란 호칭을 상황에 맞게 제대로 쓸 줄 안다면, 우리말을 잘 구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기란 참 어렵다. 그래서 나도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다.

"제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한국인의 호칭 사용법은 상대방을 가능한 높여 부르는 것을 예의로 친다. 언론 보도에 잘 나타나 있다. 사회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현재 직책을 우선한다. 공직은 장관, 차관, 국장 등 고위 직책을 우선하고, 그 아래로는 아무개 서기관, 아무개 사무관 등으로 불러 권위를 부여하기도 한다. 민간일 경우 회장, 부회장, 사장, 전무나 본부장 등 힘있어 보이는 직책명을 쓴다.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자 등 하는 일을 호칭으로 쓰기도 하고, 아무개 작가란 호칭도 요즘은 흔하게 되었다. 상대가 윗사람일 때는 끝에 '님'을 붙인다. 이름은 빼고, 성 뒤에다 직함을 붙여 '김 대표님', '윤 변호사님'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전직인 경우에는 맡았던 자리 가운데 가장 고위 직책으로 호칭한다. 언론 보도에선 '전 ○○ 국장' 식으로 쓰지만, 일상에선 그냥 '전'을 빼고 '○○ 국장님'이라고 부른다. 10년 전에 국회의원을 하고 이후 계속 낙선한 사람도 우리는 '의원님'이라고 부른다.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호칭을 통해 관계 맺기가 이뤄진다.

나를 소개할 때는 겸양의 미덕을 갖춰야 한다.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일할 때, 학창시절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을 만났다. 반가운 마음으로 다가가 큰소리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박진영 아나운서입니다"라고 인사했다. 그런데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분은 "뭐라구요? 어떻게 박진영 아나운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친구인가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선배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설명을 듣고서야 내 호칭이 문제였음을 알았다. '박진영 아나운서'가 아니라 '아나운서 박진영'이라고 소개해야 했던 것이다. 내가 나를 높인 꼴이었다.

제3자에게 내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도 호칭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 언어 예절'은 "직함을 이름 뒤에 넣어 말하면 높이는 것이 된다"고 설명한다. 자신을 소개할 때 '직함' 뒤에 '이름'을 쓰는 방식으로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것이 예절이다. 어느 회사의 부장이라면, "저는 ○○ 부장을 맡고 있는 아무개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게 예의다.

요즘에는 성 뒤에 직함을 붙이지 않고 이름 뒤에 직함을 붙이는 사례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진영 부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젊은이들 사이에선 '박 선배'라고 하지 않고, 이름에 '선배'를 붙여 부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성이 같은 직급의 상사를 구분할 수도 있다. 김 팀장님이라고 부르면 여러 사람이 돌아볼 수 있어서 이름에 직급을 부르고 있다는 어느 직원의 말도 일리가 있다.

간단하게 비교해 보자. 회사 대표를 불러보는 것이다. 민식 대표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최민식 대표님이나 최 대표님으로 부르는 게 예의다. 대통령도 국민을 향해서는 '○○○ 대통령입니다'가 아니라 '대통령 ○○○입니다'라고 하는 게 옳다. 이처럼 호칭이 적절하지 않으면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거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잘 알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요즘 권위적인 호칭을 파괴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외국계 기업 등에서 시작돼 국내 기업에도 퍼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6년 직원간 수평 호칭을 도입해, 이름 뒤에 님을 붙여 부르고 있는데, 이번에 경영진과 임원까지 수평 호칭 범위를 확대했다고 한다. 앞으로는 사장님이나 상무님이 아니라, 영어 이름이나 이니셜, 또는 한글 이름에 님을 붙여 부른다고 한다. 이재용 회장도 '재용님'이나 영문 이름 '제이', 또는 이니셜 제이와이(JY)로 부르는 것이다. 상명하복식 관료주의 문화보다는 수평적 의사소통 문화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보기에 선택한 결정일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호칭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는 변하는 것이다.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런 호칭법도 무리 없이 공존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호칭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社說

광주전남연구원, 단체장 따라 오락가락해서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또다시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를 추진하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시도 상생을 위해 통합된 지 6년여 만에 재분리하는 데 대해 연구원 노조는 물론 지역 사회에서도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광주전남연구원의 운영체제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강기정 광주시장이었다.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 답변 과정에서 용역 과제 및 연구 개발 부족을 지적하며 "통합 운영이 맞는 방향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것이다. 전남도의원들도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잇따라 분리를 주장했다. 시도는 다음 달 중 분리를 위한 사전 절차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엊그제 퇴임한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통합 상황에서는 연구원 규모가 커지고 상생 등 폭넓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도리어 규모 확대를 제안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위치한 나주시와 연구원 내부의 반발도 크다. 최근 연구원 노동조합의 설문조사에서는 87.7%의 조합원이 "분리 반대" 입장을 보였다.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지역 발전의 '싱크 탱크'(think tank)가 시도지사 입맛에 따라 분리와 통합을 거듭하는 데 대한 비판도 거세다. 당초 전남발전연구원에서 1995년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확대됐다가 2007년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됐고, 2015년에는 시도 상생 사업으로 다시 통합되는 등 곡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은 사실상 하나의 경제권이자 상호 보완적 관계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연구원을 분리할 경우 시도의 단순 용역 기관으로 전락해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광주전남연구원은 박사 37명, 출연금 70억 원 규모로 단독 운영하는 충남연구원(47명·8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다. 시도는 연구원의 분리보다 역량 강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역 발전과 미래 비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장흥군, 사기 분양 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장흥군이 야심 차게 추진한 은퇴자 공동체마을 '로하스타운'의 사기 분양으로 6년째 입주조차 못 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사업 추진 주체인 군이 피해 보전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로하스타운은 장흥군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은퇴자 공동체마을 건설 사업으로, 안양면 비동리 산 94-3번지 등 15필지에 총 350여 세대 규모로 전원주택 등을 짓는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 1차로 43세대의 입주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같은 해 2차 단지 39세대를 분양하면서 시행사인 '랜드러버스'가 전남도와 장흥군의 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분양 선수금을 받는 바람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금액은 17세대 18억 원에 이른다.

이후 피해액 보전은 장흥군이 이를 대신 변제해 준다는 단서를 달아 대체 사업자로 선정한 네 개 업체 컨소시엄의 몫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분양이 어려워지면서 이들도 새로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 피해액을 보전해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피해자들은 장흥군이 추진하고 홍보한 사업인 만큼 상당한 책임이 있는데도, 군은 "건설사와 피해자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기 분양을 한 기존 사업자부터 피해액을 보전해 준다는 대체 사업자까지 모두 장흥군이 지정했으며 합의서 작성도 장흥군 주도 아래 이뤄졌으므로 군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로하스타운은 인구 늘리기와 경제 활성화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공 개발 성격이 다분한 만큼 지자체가 짊어져야 할 의무와 책임도 따를 수밖에 없다. 장흥군은 6년째 애만 태우고 있는 피해자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복장유물

불복장(佛腹藏)은 불상 내부 공간을 경전, 공예품, 의복 등 다양한 물건으로 채우는 행위다. 워낙 다채로운 물건이 포함돼 있어 타임캡슐로 통한다. 석가모니의 고향 인도에서 불상 정수리에 작은 홈을 파고 사리를 넣은 것이 시원이라는 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성행했다.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있는 자운사(紫雲寺) 목조아미타여래좌상(木造阿彌陀如來坐像)은 대표적인 불복장 사례 가운데 하나다. 고려 때 조성된 이 불상은 2006년 복장유물(腹藏遺物) 81건과 함께 보물(제1507호)로 지정됐다.

복장유물에 포함된 수리 기록인 '중수기문'에는 1388년 나주에서 승려들이 주관해 불상을 수리했고 나주 목사 정윤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시주했다고 적혀 있다. 고려시대에 불상이 나주에 있었고, 1388년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1611년 작성한 '중수원문'과 '시주물목'에는 황금을 내놓은 이, 헝겊을 시주한 사람도 등장한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난 후 국난극복을 위해 정성을 모았던 시주자들의 마음을 엿보게 한다. 이른바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사례다. 가난한 사람이 부처에게 바친 등(燈) 하나라는 의미로, 정성이 중요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자운사 불상을 비롯해 국보·보물로 지정된 문화유산 13건을 조사한 내용 등을 정리한 '유물과 마주하다 - 내가 만난 국보·보물'을 발간했다.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미암일기·미암집목판' '구례 화엄사 화엄석경' 등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보물이 포함돼 있다. 책에는 국립문화재연구원 미술문화재연구실 연구자들의 땀과 열정이 배어 있다. 유물 보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유물과 개인적 인연을 비롯해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면모를 들려준다. 참기름병이 국보급 백자가 된 사연 등 흥미로운 내용도 있다. 문화재연구원은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기 위해 홈페이지(연구마당-연구자료 통합검색)에서 책을 무료로 내려받도록 탑재해 놓았다. 이 책에 수록된 우리 문화재 내력을 읽어 보고 현장에서 실견하면 새로운 감흥을 안겨줄 듯싶다.

/윤영기 체육부 부국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